

# 주류이데올로기의 한국드라마 수용: 중국공산당의 문화 담론 맥락에서 본 한국드라마 담론(2002-2012)

이루다\*

## | 목 차 |

I. 들어가며	1. 문화 담론 생성의 대내외 환경
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2. 문화 담론과 한국드라마 담론의 상호관계
1. 연구문제	
2. 연구방법	
III. 문화 담론과 한국드라마 담론	IV. 나가며

## | 논문요약 |

이 연구는 담론을 매개로 중국에서 2002년부터 2012년 사이의 공산당의 주류 이데올로기와 한국드라마의 관계를 탐색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공산당의 문화 담론이 생성되는 주요한 대내외 환경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중국 핵심 학술 등재지가 생성한 한국드라마 담론은 무엇인가. 셋째, 공산당의 문화 담론과 한국드라마 담론의 상호관계는 무엇인가 등 세 가지이다. 담론 분석 텍스트는 제16차 및 제17차 당 대회 보고, 『국가 ‘십일오’시기 문화발전계획』, 36개 중국 핵심 학술 등재지의 120편 논문이다.

공산당의 문화 담론 생성은 여러 환경 요소 중 ‘화평굴기’와 ‘문화세계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중국 핵심 학술 등재지가 생성한 한국드라마 담론은 크게 ‘문화산업’과 ‘유가문화’ 담론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담론 분석 결과 문화 담론과 한국드라마 담론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발견했는데, 권력과 담론의 영역에서 보면 주류 이데올로기가 한국드라마를 수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중국 북경대학교 예술대학원(北京大學藝術學院) 박사수료.

▪ 주제어: 중국공산당, 한국드라마, 문화산업, 유가문화, 담론분석

## I. 들어가며

K팝, 해외 시장서 수면 위로 등장...한류 주역으로(『연합뉴스』, 2013년 7월 14일)

한국 언론은 2013년 7월 <강남스타일> 발매 1주년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강남스타일>이 K-pop을 세계적으로 유행시켰고 또 다시 세계에 한류를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류라는 용어를 말할 때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한국드라마의 유행을 빼놓을 수 없다. 2000년대 중국<sup>1)</sup>에서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한 한국드라마<sup>2)</sup>는 일본, 대만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세계 여러 나라에 팬덤을 만드는 등 한류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국드라마가 처음부터 중국수용자의 관심을 끈 것은 아니었다(龔知敏 2006; 魏國彬 2007). 일반적으로 1997년 CCTV-8에서 방영된 <사랑이 뭐길래>부터 중국 수용자는 한국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趙春梅/鄭美連 2005; 靳擎 2005; 蘇志武/丁俊傑 2006; 張建敏 2006; 鐘瑋 2008). 그 후 2000년대 들어서부터 CCTV 뿐 아니라 중국의 여러 지역방송국이 경쟁적으로 한국드라마를 방송하기 시작했다. 朱權(2006)의 연구에 따르면, 2005년 들어서 호남방송국(湖南衛視)이 방영한 <대장금>은 중국 사회가 <대장금> 증후군에 빠질 만큼 큰 인기를 끌었고, 광둥방송국(廣東電視台)의 <내 사랑 팔쥐>와 강소방송국(江蘇衛視)의 <파리의 연인>처럼 각 지역 방송국은 앞 다투어 한국 드라마를 수입해서 방영했다. 또한 CCTV-8은 <군세어라, 금순아>를 한국과 동시 방영하는 등 한

- 1) 홍콩의 경우 한국드라마 유행이 시기적으로 좀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의 지역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지역을 대륙(大陸)이나 내지(內地)라고 말한다.
- 2) 중국에서 한국드라마 방영은 1993년 CCTV(中國中央電視台)에서 <질투>가 처음으로 방영된 후 2013년으로 20주년을 맞았다.

국 드라마는 2005년 중국에서 최고 전성기를 기록했다.

이처럼 중국에서 한국드라마 시청이 한류라는 유행 현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학계에서는 심층면접, 설문조사, 인터넷 커뮤니티 조사 등을 통해 중국수용자를 분석하기 시작했다(허진 2002; 이준웅 2006; 유세경/고민경 2006; 이문행 2011; 공채희/안수근 2012; 이경숙 2012). 대부분의 수용자 연구들은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유행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문화할인율’(cultural discount)을 제시했다. 한중 양국이 유가<sup>3)</sup>문화(儒家文化)를 공유하기 때문에 중국 수용자가 가족관계나 사회생활 등 많은 부분에서 유가문화가 재현되는 한국드라마를 다른 문화권의 드라마보다 더 쉽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동아시아가 유가문화권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한중 양국이 역사적으로 유가문화를 계승·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홍석경(2013, 157)은 한류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서 “한류 중심의 동아시아 정체성 논의에서 벗어나기”를 하나의 과제로 제시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유가문화를 공유하는 시각에서 벗어난 한국드라마 연구는 어떻게 가능할까. 중국은 일본,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 등 한국드라마가 유행하는 국가와 지역과는 정치·경제·언론 환경 등이 다른 점에 착안할 수 있다. 백영서(2010, 5)는 현대 중국의 특수성을 “사회주의, 발전국가 및 전통중국이라는 세 가지 특성이 교차하는 복잡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르크스주의를 핵심이데올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이 유일한 집권당이고, ‘당-국가’(party-state) 체제로 불리는 공산당 중심의 정치권력은 일본과 같은 대표적인 한류 유행국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공산당의 영향력은 다른 국가의 집권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특히, 공산당이 생성하는 담론<sup>4)</sup>의 영향력<sup>5)</sup>이 크기 때문에 이 연구는 기

3) 이 연구는 중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담론분석을 했다. 따라서 문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번역 문장 외에도 보통 한국에서 사용하는 유교(儒敎) 대신 유가(儒家)로 용어를 통일했다.

4) “담론은 사회적으로 생산된 일련의 이념들, 혹은 사고방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개별적인 텍스트나 집단적인 텍스트를 통해 밝혀 낼 수 있지만 동시에 보다 광범위한 역사적, 사회적 구조나 관계 내에서 파악되어야한다”(터너 2011, 46-47).

5) 당대회가 끝나면 관공서는 물론이고 전국의 공산당과 학교 등의 간부들은 당대회에서 나온 내용을 학습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2012년 18차 당대회(11.8~11.14)

존의 개별수용자 중심의 한국드라마 연구에서 벗어나서 담론과 권력의 영역에서 한국드라마가 어떻게 수용됐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연구의의가 있다. 첫째,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드라마 수용을 탐색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거시적이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개별수용자연구보다 문화현상측면에서 한국드라마 수용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권력과 대중문화의 관계를 중국현실에서 살필 수 있다. 권력은 속성상 미디어를 통제하고 선전해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다.<sup>6)</sup> 확고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당도 담론 생성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고 자신의 목표를 구현한다. Hastings(1998)은 정책이란 국가가 구사한 상징체계 또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담론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정치체제에서 공산당이 생성하는 담론은 국가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류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공산당의 담론과 주류이데올로기가 한국드라마를 어떻게 수용했는지 탐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것은 권력과 대중문화라는 전통적인 문화연구의 문제를 중국현실에서 다시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은 공산당의 문화 담론이 생성되는 환경요인을 살펴봤다. 담론은 시대를 반영하기

---

폐막 후 '18대정신'(十八大精神)이라는 이름으로 언론매체는 선전을, 각 기관에서는 토론회를 열면서 학습을 시작했다.

6) 미셸 푸코(2003)는 어느 사회에서나 신체는 매우 치밀한 권력의 그물 안에 잡혀 있고, 인간은 그 권력에 신체를 구속하고 금기하거나 의무를 부과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푸코가 권력의 작동경로와 힘의 행사에 주목해서 일상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재성과 일상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나일화 2008). 이러한 푸코의 권력 개념을 중국 정치체제에 적용해 보면, 공산당이 담론의 공간인 미디어를 통해 일상에서 권력을 대중에게 행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때문에 담론이 생성되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다. <연구문제 2>는 중국에서 한국드라마 담론을 알아보기 위해 『중문핵심학술지 주요항목 소개』(中文核心期刊要目總覽<sup>7)</sup>에 등재된 학술지의 한국드라마 논문을 분석했다. 이들 등재 학술지를 통칭해서 중문핵심학술지(中文核心期刊<sup>8)</sup>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중국 핵심학술 등재지로 표기했다. <연구문제 3>은 공산당의 한국드라마 수용을 설명하기 위해 공산당이 생성한 담론의 맥락에서 한국드라마 담론을 분석했다.

연구문제 1: 공산당의 문화 담론이 생성되는 주요한 대내외 환경요소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중국 핵심학술 등재지가 생성한 한국드라마 담론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공산당의 문화 담론과 한국드라마 담론의 상호관계는 무엇인가.

## 2. 연구방법

공산당과 한국드라마의 두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담론분석을 이용했다. 홍정화(2013)는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한 정책분석 연구에서 담론분석이란 텍스트 분석을 통해 사회·정치·경제 맥락과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구조의 질서와 변동을 이해하려는 접근방식으로 설명했다. 담론분석은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숨겨진 관계를 드러내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반 다이크(Van Dijk)는 지배와 담론의 측면에서 인종주의와 반외국주의(xenophobia)를 주목해서 연구했다(Wodak 2006, 13).

7) 중국에서 처음으로 대량의 학술지를 통계 분석하고 분류해서 학술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1992년 처음 발간한 후 최근 2011년까지 매 4년마다 발간하고 있다.

8) 『중문핵심학술지 주요항목 소개』에 따르면 중문핵심학술지란 특정 학과나 전문 분야의 논문이 매우 많고, 그 학과의 새로운 연구 성과나 미래의 경향을 반영하고, 인용지수가 높고, 학술 분야에 영향력이 매우 커서 그 학과나 전문 분야의 독자가 중시하는 학술지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 담론분석의 텍스트를 공산당과 한국드라마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당의 문화 담론 텍스트는 중국공산당 제16차와 제17차 전국대표대회<sup>9)</sup> 보고<sup>10)</sup>, 『국가 ‘십일오’시기 문화발전계획강요』(國家“十一五”時期文化發展規劃綱要)이고, 둘째, 한국드라마 담론은 36개 중국 핵심학술 등재지<sup>11)</sup>의 120편 논문이었다. 한국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처럼 중국학계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로 인정받는 기준<sup>12)</sup> 중 하나가 북경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중문핵심학술지 주요항목 소개』에 등재 유무이다. 학문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 주류학계의 연구는 많은 부분 당대회에서 나온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지지하고 반영한다. 따라서 공산당의 담론과 한국드라마 담론 사이의 관계를 보기 위해 주류학계를 대표하는 중국 핵심학술 등재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드라마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 핵심학술 등재지의 논문을 선정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중국의 대표적인 학술검색도구인 CNKI<sup>13)</sup>를 이용해서 2013년 1월 1일 중국 핵심학술 등재지의 한국드라마 논문을 검색했다. 구체적인 검색 조건은 첫째, 『중문핵심학술지 주요항목 소개』가 2012년에 2011년판이 출판되었지만 CNKI의 검색조건으로는

- 
- 9)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中國共產黨全國代表大會)’는 중국의 유일한 집권당인 공산당이 5년마다 여는 가장 중요한 회의로 5년 동안 당과 정부를 이끌 지도자와 정책 방향 등이 정해진다. 2013년 현재 18차까지 열렸다.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당대회’로 줄여 표기한다.
- 10) 2002년 11월8일 16차 당대회에서 지양저민(江澤民)은 『소강사회를 전면 건설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신국면을 열어놓자』는 제목의 보고를 했다. 2007년 10월15일 17차 당대회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소강사회 전면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분투하자』는 제목의 보고를 했다.
- 11) 『前沿』, 『瞭望』, 『文藝爭鳴』, 『飛天』, 『中國比較文學』, 『文藝研究』, 『中國戲劇』, 『旅遊學刊』, 『思想政治課教學』, 『南京師大學報』, 『蘇州大學學報』, 『社會科學戰線』, 『華南師範大學學報』, 『裝飾』, 『南方文壇』, 『中州學刊』, 『讀書』, 『上海師範大學學報』, 『文藝理論與批評』, 『江淮論壇』, 『當代電影』, 『四川戲劇』, 『作家』, 『戲劇文學』, 『藝術百家』, 『中國青年研究』, 『新聞知識』, 『現代傳播』, 『電視研究』, 『北京電影學院學報』, 『新聞愛好者』, 『中國廣播電視學刊』, 『新聞界』, 『中國電視』, 『當代電視』, 『電影文學』
- 12) RCBSE-CASS(中國社會科學院文獻信息中心文獻計量學研究室)가 발행하는 CASS(中國人文社會科學核心期刊要覽)와 남경대학교(南京大學)에서 발행하는 CSSI(中文社會科學引文索引)도 중국에서 국내 학술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 13) <http://www.cnki.net>. (2013년 1월 1일 검색)

아직 2008년도판이 기준이어서 2008년도판의 등재지로 제한했다. 둘째, 검색기간을 2002년부터 2012년으로 제한했다. 셋째, 검색단어 범주로는 제목과 키워드를, 검색단어로는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뜻하는 ‘한취’(韓劇)와 ‘한귀덴스취’<sup>14)</sup>(韓國電視劇)를 사용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한국인 저자의 단독 논문, 중복게재와 한복재질에 관한 논문 등을 제외한 120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 Ⅲ. 문화 담론과 한국드라마 담론

#### 1. 문화 담론 생성의 대내외 환경

1979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중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이 연구의 분석기간인 제4세대 지도부의 10년의 통치기간은 중국이 세계강국으로 떠오르는 전환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00년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중국과 관련된 사건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를 성공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당의 제4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10년이 시작됐다. 2008년에는 북경올림픽을 개최했고, 2010년에는 국민총생산(GDP)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이 기간은 중국이 세계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시기로 세계 언론과 학계는 중국과 미국을 G2(group of two)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주변국은 정치·경제·문화 등 종합국력이 신장하는 중국을 위협적인 패권국가로 봤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의 부상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개념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화평굴기’(和平崛起)이었다. 중국의 부상이 군사대국화로 연결되는 침략적인 패권국가의 모습이 아닌 다른 나라와 조화를 이루며 평화를 추구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공산당의 문

14) 중국어 표기는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다.

화 담론은 ‘화평굴기’의 구체적인 방법의 고민에서 생성됐다고 볼 수 있다.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강대국의 증표로 문화만큼 적절한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저 공산당이 직면한 새로운 환경변화의 요소 중 하나로 ‘화평굴기’에 주목했다.

사실 냉전 후에 중국은 위험지역, 자유가 부족한 권위주의국가, 경제세계화 과정 중 공평한 경쟁을 하지 않는 국가 등 외부세계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왔다(孫學峰 2011, 118). 따라서 공산당은 기존의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와 더불어 중국의 부상에 따른 외부세계의 견제와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국가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고민은 먼저 외교정책의 변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80년대말에서 90년대초에는 덩샤오핑(鄧小平)이 주장한 “도광양희, 유소작위(韜光養晦、有所作爲)”가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王錦俠/張奇 2004, 286)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실력을 키웠지만 후진타오부터는 경제성장에 따른 자신감으로 좀 더 유소작위에 가까운 정책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또 다른 문제 해결방법으로는 유가문화의 재강조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후진타오는 유가사상에 기반을 둔 ‘조화사회’(和諧社會)를 제기했다. 이것은 공산당이 유가를 다시 통치 이데올로기로 주목한 사실 뿐 아니라 유가가 주창하는 조화가 대외적으로도 다른 나라와 다툼을 일으키는 패권주의가 아님을 강조했다. 藝衡(2008)은 1949년 중국의 건국을 고대 “문명국가”(文明國家)나 “천하국가”(天下國家)가 아닌 서양의 근대 국가 개념인 “민족국가”(nation-state)로 설명했지만, 미래의 중국은 “문명-국가”(civilization-state)라는 새로운 국가형식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산당은 유가문화에서 다시 중국이 나갈 길을 찾으면서 새로운 국가모델과 국제관계를 보여줬다. 이것은 중국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중화사상으로 회귀하는 길이기도 했다.

위와 같이 ‘화평굴기’를 통해 외부세계의 비판에 대응하는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확인할 수 있다면, ‘문화세계화’(文化全球化)를 통해서도 세계화라는 전 세계적인 조류에 저항하는 공산당의 주류이데올로기를 살필 수 있다. 앤드루 존스(2012)는 학자들마다 세계화에 대한 다른 정의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화를 정의하는 방식마다 인식론적 차이”, “학문 분야별



맥락의 문제”, “세계화 논의 내부에 지속적인 긴장”이 남아 있는 등 세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세계화의 등장시기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다른 견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20세기 들면서 세계화가 널리 퍼지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든스는 “멀리 떨어진 지역성을 연결하는 전 세계적 사회관계의 강화”(존스 2012, 361)로 세계화를 정의하고 있다. 이런 세계화를 다른 말로 경제세계화나 문화세계화로 말하기도 한다. 그 만큼 세계화가 경제와 문화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경제세계화에 더욱 깊숙이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경제 도입이 자본주의 체제로 완전히 전환한 것은 아니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와는 다른 특색사회주의(特色社會主義)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여하튼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중국 체제의 실체가 자본주의인가, 아니면 외부세계에서는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힘든 특색사회주의인지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는 특색사회주의를 지탱하는 공산당의 주류이데올로기 실체는 무엇이고, 한국드라마라는 대중문화가 공산당의 문화 담론에서 수용되고 소비되는 현상을 살피기 위해서 세계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로 문화상품이 더욱 쉽게 국경을 넘나들게 되고 각국의 문화다양성이 점차 더 위협받는 등 이러한 문화세계화에 대해 공산당이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공산당은 문화세계화속에서 서구자본주의 문화침투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했다. ‘문화세계화’는 국가나 민족의 이데올로기, 가치관, 생활방식 등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중국 주류학계도 세계화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국가들의 자본주의 문화전파로 해석했다(徐海波 2009; 張驥 et al. 2010). 劉少杰(2012)는 세계화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이데올로기 충돌 문제의 핵심을 아는 것은 중국이 앞으로 건강한 사회발전을 하기위해 개혁을 강화하고 사회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산당은 세계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에게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위협요소라고 인식했다. 동서독의 통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소련의 해체 등은 공산당에게 어떻게 사회

주의를 지속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공산당과 학계는 세계화에 맞서 ‘문화안전’(文化安全)<sup>15)</sup>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문화와 이데올로기 안전은 국가이익과 국가전략”과도 직결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張驥 et al. 2010).

## 2. 문화 담론과 한국드라마 담론의 상호관계

이 연구에서 공산당의 문화 담론과 중국 핵심학술 등재지의 한국드라마 담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공산당의 주류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한국드라마를 수용했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담론의 맥락에서 한국드라마의 수용을 설명하는 시도이다. 공산당의 문화 담론은 제16차와 제17차 당대회 보고, 『국가 ‘십일오’시기 문화발전계획강요』를 텍스트로 분석했다.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여러 방면의 내용이 담긴 당대회 보고의 경우 문화 항목에서 담론을 분석했다. 한국드라마 담론은 먼저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중국 핵심학술 등재지의 120편의 논문을 분류했다.<sup>16)</sup> 연구주제는 논문의 내용을 가장 잘 대표하기 때문에 논문이 생성하는 주요 담론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다고 봤다. 10편 이상의 논문 중 인기원인, 문화산업 전략·정책, 미학, 서사, 수용자, 유가문화 등의 순서로 관련연구주제가 많았다. 인기원인은 포괄적으로 한국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를 얻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산업’(文化產業)과 ‘유가문화’(儒家文化)의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휴머니즘, 가족, 전통가치관 등의 주제도 유가문화와 관련이 있는 등 문화산업과 유가문화는 한국드라마 논문에서 주요한 담론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화산업과 유가문화를 한국드라마 담론으로 선정한 후 두 담론을 기준으로 전체 120편의 논문에서 관련 담론을 추출했다. 다음으로 이들 두 담론의 내용을 설명하고 담

15) ‘문화안전’에 관한 내용은 국가학술연구과제(國家哲學社會科學基金項目)로 채택되는 등 주요한 국가과제인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05년도 과제의 최종결과물인 『中國文化安全與意識形態戰略』이 있다.

16) 인기원인(23편), 문화산업 전략·정책(14편), 미학(13편), 서사(13편), 수용자(11편), 유가문화(10편), 특징(8편), 교훈과 학습(6편), 유형(5편), 여성주의(3편), 인기되조(2편), 휴머니즘(3편), 복장(2편), 요리(2편), 교육이념(1편), 역사왜곡(1편), 문화차이(1편), 가족(1편), 전통 가치관(1편) 등 19가지로 분류됐다.

론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겠다.

### 1) 문화산업 담론

중국 핵심학술 등재지가 생성한 한국드라마 관련 문화산업 담론은 ‘정부주도의 문화산업 정책’과 ‘문화수출 전략’의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 ‘한국정부의 문화산업 정책’을 보면 중국 핵심학술 등재지는 공통적으로 한국정부의 정책수립, 법률제정, 지원 등 노력이 해외에서 한국드라마 성공의 주요 요소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1998년에 한국정부는 ‘문화입국’이라는 국가전략과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여러 법령을 제정하고 정책을 실행한 것이 사실이었다.

중국에서 아시아까지 한국드라마가 점점 유행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문화산업 정책이 큰 작용을 했다(智華 2004).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드라마의 유행은 먼저 관련정책의 결과로 ...21세기 국가경제 발전의 전략적 중심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삼았다(路璐 2007).

한국드라마의 성공은 한국정부가 장려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과 분리할 수 없다(高福安/王曉妍 2008).

한국드라마의 성공을 한국정부의 문화산업 정책과 연결시키는 것은 2000년대 들어서 공산당이 강조하기 시작한 문화산업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5회5중전회(十五屆五中全會)에서 『‘15’계획에 관한 건의』(關於“十五”計劃的建議)를 통해 문화산업이란 개념을 제시했는데 “당의 문건 중 ‘문화산업’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순간이었다(孫連才/候紅婕 2012). 문화산업은 점점 중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중요한 국가과제가 되어 갔는데, 문화산업에 관한 담론의 변천을 “문화도 생산력이다”(2002년) -> “문화산업은 반드시 중견사업이 되어야한다”(2007년) -> “문화산업은 경제를 전환시키고 상승시키는 엔진이다”(2011)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李思屈 et al. 2012). 또한 당대회와 정부문건에서도 문화산업은 중요한 담론으로 생성됐다.

문화산업 정책을 완벽하게 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지지하고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종합실력과 경쟁력을 강화한다(『十六大報告』).

문화산업을 힘껏 발전시키고...문화시장을 번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인다(『十七大報告』).

문화산업 정책을 끊임없이 완전하게 하고, 국영문화기업의 실력을 끊임없이 신장시키고, 비국영제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빨리 올린다(『國家“十一五”時期文化發展規劃綱要』).

16차 당대회 보고에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산업 발전이 종합국력의 수단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17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문화산업 발전이 국제경쟁력의 수준까지 연결됐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의 경쟁과 발전 담론은 문화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접근을 의미했다. 2009년 9월 국무원은 『문화산업진흥계획』(文化產業振興規劃)을 발표했다. 중국 핵심학술 등재지가 생성한 한국드라마의 문화산업 담론과 공산당의 문화산업 담론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문화의 산업적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국은 문화산업 전에 문화사업만 존재했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개념의 하나로 문화사업(文化事業)은 문화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문화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상품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후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에게 문화도 시장경제의 법칙을 따르는 상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공산당의 문화산업 담론은 개혁개방 후 지속적인 시장경제의 확대와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됐다.

문화산업 발전은 시장경제조건 아래에서 사회주의문화를 번영시키고(『十六大報告』).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저동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3개 대표’ 중요사상으로 지도를 삼고(『國家“十一五”時期文化發展規劃綱要』).

문화산업은 문화사업과 달리 시장경제의 산물이지만 공산당은 문화산업 역시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강조했다. 이것은 중국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어떤 정책도 공산당의 핵심이데올로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중국의 문화산업이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전략을 세워 발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한국드라마의 문화산업 담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드라마가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관련이 없는 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의 대중문화와 비교할 때 이해하기가 쉽다. 공산당은 개혁개방 후 서양의 문화 침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세계화로 서양이 말하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의 개념과 가치관이 영화와 드라마 등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들어오면서 사회주의의 가치관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드라마도 자본주의 문화를 재현하기도 하지만 유가문화를 내포하기 때문에 문화침투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것이 공산당의 주류이데올로기가 한국드라마를 수용한 주요한 요인이다.

두 번째 한국드라마 담론은 ‘문화수출’이다. 중국 핵심학술 등재지는 한국드라마와 한류에 주목했다. 한류의 발생지인 중국입장에서는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대중가요, 음식, 패션까지 한류현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중국 뿐 아니라 일본과 동남아시아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드라마의 성공은 좋은 학습 대상이었다.

한류의 출현은 세계문화커뮤니케이션 역사상 하나의 기적을 만들었다. 이것은 먼저 한국문화 발전전략의 세계화 시각 덕택이다(包峰 2008).

그러나 ‘문화수출’ 담론에서 공산당의 문화 담론과 한국드라마 담론 사이에 차이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드라마가 외환위기 속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성장했다면 공산당은 문화를 종합국력의 한 요소로 보면

서 세계강국이라는 정치측면에서 접근했다. 물론 한국내의 한국드라마 담론도 정치적 요소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정부가 한류를 ‘공공외교’나 국력신장의 수단으로 접근한 것을 볼 수 있다. 어쨌든 공산당의 문화 담론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문화수출’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일어서는 시대적 환경이 하나의 결정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당대회 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공산당의 종합국력에 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藝衡(2009)은 종합국력의 세 가지 요소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바당과 강력한 후원자로 각각 경제력과 군사력을 꼽았고, 이 둘을 전제로 국가의 조직적인 행동을 조정해서 일치시키는 능력으로 소프트파워를 설명했다.

지금 시대에 문화가 점점 민족의 응집력과 창조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점점 종합 국력 경쟁의 중요 요소가 되고(『十七大報告』).

복잡한 국제환경에서 국제경쟁을 이기려면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과 국방실력 강화 뿐 아니라 동시에 문화실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國家“十一五”時期文化發展規劃綱要』).

이처럼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을 종합국력의 요소로 볼 때 공산당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화산업을 문화발전의 한 방법론으로 삼았는데 소프트파워는 그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십이오’시기문화발전의 중점은...‘문화수출’(走出去)의 중대공정과 사업실시를 잘 잡아서(『國家“十一五”時期文化發展規劃綱要』).

국가문화소프트파워(國家文化軟實力)를 높이고(『十七大報告』).

소프트파워의 창시자 나이프(Nye 2005)는 소프트파워를 상대방에게 호감을 만들어 내서 어떤 강요나 지불 없이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소프트파워는 역사적으로 중국에 낫설지 않은

개념이다. 중국의 고대국가와 주변 국가들의 관계는 주변 국가들이 선진적인 중화문화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조공체제를 수용해서 천하체제에 편입하는 것이었다(이정남/김병국 2010). 중국은 이것이 서양제국주의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런 중국측의 역사적 해석에 따르면 조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천하체제의 수용은 문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오늘날의 소프트파워로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문화산업 담론 생성과 더불어 중국에서도 소프트파워가 문화산업발전의 이론적 근거 뿐 아니라 하나의 담론으로 발전했다.

## 2) 유가문화 담론

2000년대 들어서 역사적으로 주류정치이데올로의 역할을 했던 유가사상이 중국사회에서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다. 2002년 11월 16차 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사회주의의 조화사회’ 건설은 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한국드라마 유행이 몰고 온 한국드라마 담론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중국 핵심학술 등재지가 한국드라마 연구에서 생성한 유가문화 담론은 첫째, ‘한국전통문화의 기원은 중국의 유가문화’와 둘째, ‘유가적 가치관 재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첫째, 중국수용자는 한국드라마가 재현하는 유가문화에 정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감정을 느꼈다. 이것은 중국수용자가 한국드라마를 일차적으로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문화할인율’으로 설명되는 한국드라마 유행의 원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유가문화 담론의 또 다른 한편에는 중화사상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유가문화 담론의 중심부에는 중국문화가, 주변부에는 한국문화가 있는 ‘중심-주변’ 구조이다.

문화심리상 중한양국은 동북아문화권에 속하고 서로 윤리규범과 가치관념이 가깝다(郭敏 2006).

한국인은 한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감정표현, 가치관념과 사유방식에서 중국인과 비교적 가깝고, 개인과 가족관계에서 조화를 매우

중시하고, 사회요구, 국가이익과 개인자유를 하나로 합친다(郭敏 2006).

사실 한국드라마에서 어느 곳이나 중국문화의 깊은 영향을 볼 수 있다(張少輝 2011).

많은 중국시청자가 한국드라마를 보는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한국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인륜관계가 중국과 기원이 같기 때문이다(張少輝 2011).

물론 모든 담론이 한국문화가 단지 중국문화의 복제라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문화의 근원이 중국문화이지만 중국문화를 수용한 후 자신만의 특징으로 발전시켰다는 담론도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화 시대에 문화다양성으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만들었고, 한국드라마가 다른 나라에서 유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대한국은 가치 관념이 날로 다양해지고 미국문화가 사회생활의 많은 방면에 영향을 주는 시기에 있다. 한국은 민족풍속과 유학을 하나로 합쳐서 한국문화의 기초로 삼아서 세계화 아래에서 자신의 문화신분을 만들었고 한국문화를 발전시켰다(郭敏 2006).

중국에서 한국드라마의 유행은 때마침 당대중국인의 전통문화에 대한 회고와 사랑을 전해줬고...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중국전통문화의 계승과 다문화의 발전과 전파를 반성하게 했다(郭敏 2006).

한국문화는 수많은 중국전통문화를 수용한 기초에서 스스로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고(馬建高 2008).

이러한 중국 핵심학술 등재지의 ‘한국전통문화의 기원은 중국의 유가문화’ 담론은 특히 제4세대 지도부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중화민족이나 중화가족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가족문화’ 중의 인륜과 규범을 느끼고 경험하고 공감…사람들을 위해 자기반성의 정신의 고향을 제공한다(郭敏 2006).

중화문화를 발전시키고, 중화민족이 공유하는 정신의 고향을 건설한다(『十七大報告』).

한국드라마 담론과 공산당 문화 담론에 각각 포함된 유가문화와 중화문화는 모두 당시대 중국에서 주류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다민족 국가인 중국을 단결시키는 공산당의 문화 담론을 반영했다. 신장(新疆)의 위구르족과 시장(西藏)의 티베트족의 독립운동 문제는 중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끄는 문제로 중국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수민족 문제(이원봉 2008, 336)일 뿐 아니라 국가이익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공산당과 언론에서 선전하는 ‘중화고향(中華家園)이나 ‘중화대가족(中華大家庭)이라는 담론도 애국주의와 민족단결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유가적 가치관 재현’이란 한국드라마가 충·효·예 등 전통의 미덕 등 유가적 가치관을 잘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드라마는 현대생활방식에서 전통가치관과 도덕관습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이 둘은 집단의 조화와 도덕결합에 두드러지게 작용한다(吳麟 2006).

우수한 한국드라마는 ‘가족문화’가 핵심이다(郭敏 2006).

한국드라마가 표현하는 ‘가족문화’의 속뜻은 무엇인가? 일상생활에 대한 심미이고 본래 유가의 생활유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郭敏 2006).

인륜관계규범, 가치관념과 생활유학은 ‘가족문화’의 핵심적인 함의를 이룬다(郭敏 2006).

<대장금>은 확실히 도덕교화(道德教化)를 널리 알리면서 따뜻함이 가득한 드라마다...대장금은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충(忠)효(孝)겸(謙)치(恥)용(勇) 등 여러 미덕을 가지고 있고 그녀와 중국인의 미덕관은 정확히 부합한다(黃維樑 2010).

중국사회가 유가적 가치관에 다시 주목한 배경에는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유가문화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사회·문화 환경과 관련이 깊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사회는 전통가치관의 붕괴, 윤리관계의 위기와 인문 관심 부족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때에...한국드라마는 어느 정도 사회를 안정시키고 도덕체계를 새로 세우는 작용을 했다(趙建華 2005).

문화대혁명과 같은...반전통문화의 대조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남겨서 상세기 70년대 후에 태어난 중국인은 문화정신상 분열이 나타났다(郭敏 2006).

1840년 아편전쟁이후 사람들은 효 문화를 포함한 내재된 전통문화에 대해 반성과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 오사운동은 이런 사조의 최고봉으로 효도를 핵심으로 하는 가정윤리의 전통을 심하게 비판했다(劉道鋒 2009).

한국드라마의 유가전통윤리에 대한 표현 특히 효도사상의 긍정과 선양은 중국 관중의 전통문화에 대한 추억과 들어맞았고, 민족의 고전적인 심리잠재의식으로 돌아오게 했다(劉道鋒 2009).

유가적 가치관은 과거에 봉건적 가치관으로 매도됐지만 개혁개방과 세계화의 조류에 따른 환경 변화로 새롭게 요구되었다. 이것은 날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절대적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후진타오는 2005년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조화사회론'을 제시하면서 '조화로우미 소중한 것이다'(和爲貴)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했고, 또한 2006년 전국정협 민영, 민

진 연조회(全國政協民盟、民進聯組會)에서 팔영팔치(八榮八恥)의 ‘사회주의 영욕관’(社會主義榮辱觀)을 제시하면서 사회주의 가치관과 도덕을 강조했다.

한국드라마는 거의 모든 드라마가 ‘노인을 존경하고 아이를 사랑하다’(尊老愛幼), ‘겸손하고 양보하다’(謙恭禮讓), ‘성실하게 친구와 교제하다’(誠信交友), ‘소박하고 절약하다’(樸實節儉),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참다’(含蓄隱忍),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積極進取) 등 전통윤리미덕을 포함한다. 우리나라가 점점 상업화 사회가 되는 중에 사람들이 익숙한 전통도덕의 역할은 이미 무시되고…이때 한국드라마는…우리나라 전환기에 특수한 도덕교화 작용을 했다(趙建華 2005).

한국드라마는 현대생활방식에서 전통가치관과 도덕관습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이 둘은 집단의 조화와 도덕결합에 두드러지게 작용한다(吳麟 2006).

사회주의시장경제와 서로 적응하고 사회주의 법률규범과 서로 어울리고, 중화민족 전통미덕과 서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사상 도덕체계를 건설한다(『十六大報告』).

사회공덕, 직업도덕과 가정 미덕 교육을 강화하면서 특히, 청소년의 사상도덕 건설을 강화하며(『十六大報告』).

공산당은 개혁개방 후 급속한 경제발전 뒤에 따라온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유가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발전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發展是硬道理)로 대변되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시장경제 도입 전에는 없던 빈부격차와 기타 사회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인(2012, 183)은 공산당의 유가적 전통에 대한 접근과 수용을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에서 분배 위주의 발전전략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분석했다. 물론 1949년 중국건국 이후 유가가 주류정치이데올로기로 수용된 것이 2000년대 들어서 처음은 아니다. 덩샤오핑이 주장한 ‘소강사

회’(小康社會)도 유가를 기반으로 했다. 그러나 2000년 들어서 부터 두드러지게 유가를 정치이데올로기로 삼고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창준(2012, 340)은 중국에서 2000년 전후로 다시 전통문화를 수용하는 문화조류는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미 중국의 당과 정부와 이데올로기를 같이 하면서 ‘중국특색사회주의’, ‘사회주의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1980년에 있었던 전통문화 부정과는 크게 다르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유가적 가치관을 포함하는 한국드라마 담론은 이런 중국의 시대변화와 공산당의 유가문화를 강조하는 문화 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통적인 정치권력과 대중문화의 역학관계에서 보면 권력은 항상 대중문화를 이용했다. 한국드라마는 공산당의 문화 담론 입장에서 보면 가장 효과적인 선전도구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물론 공산당이 구체적으로 한국드라마를 선전도구로 사용한 증거는 없다. 다만 이 연구에서 주류학계가 한국드라마를 공산당이 강조한 유가문화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 IV. 나가며

이 연구는 개별수용자연구에 치우친 기존의 중국에서 한국드라마 연구와 달리 연구대상으로 권력과 담론을 선정했다. 여기서 권력은 공산당을 가리키는데 공산당의 두 가지 특징에 주목했다. 첫째는 한국드라마가 유행하는 다른 국가에서 보기 힘든 ‘당-국가’ 체제의 유일한 집권당이고, 둘째는 언론이나 학계의 연구를 통해 선전되고 확산되는 공산당이 생성하는 담론의 영향력이다. 공산당의 담론은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주류이데올로기 역할을 하는데, 중국 핵심 학술 등재지의 연구방향이나 이론적 배경 등도 공산당의 담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담론 구조에서 한국드라마 담론은 공산당의 문화 담론 맥락에서 볼 때 당의 주류이데올로기와 잘 부합했다.

한국드라마 담론이 공산당의 문화 담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기 위해 먼저 2002년부터 2012년으로 담론분석 기간을 제한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드라마는 2000년대 들어서 유행하기 시작해서 2005년 <대장금> 때 전성기를 맞는 등 발전의 변화를 보였고,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당의 제4세대 지도부는 당과 정부를 이끌었기 때문에 한국드라마와 공산당의 두 담론의 관계를 살피기에 적절한 시기였다. 다음으로 공산당과 한국드라마의 담론분석 텍스트는 제16차와 제17차 당대회 보고, 『국가 ‘십일오’시기 문화발전계획강요』, 36개 중국 핵심학술 등재지의 120편 논문이었다.

이 연구는 공산당의 문화 담론이 생성되는 대내외 환경변화 중 ‘화평굴기’와 ‘문화세계화’에 주목했다. 먼저 ‘화평굴기’를 보면 공산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세계가 중국을 잠재적 패권국가로 바라보는 중국위협론에 맞서서 ‘화평굴기’를 제시했다. 이것은 중국의 강대국 부상이 외부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로운 굴기라는 입장이었다. 다음으로 ‘문화세계화’를 보면 공산당은 경제세계화 뿐 아니라 문화도 하나로 통일되는 ‘문화세계화’에 위협을 느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자본주의 국가의 대중문화가 ‘문화세계화’를 이끌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산당은 이러한 대내외 변화 속에서 ‘유가문화’를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유가문화’는 ‘문화세계화’의 위협에서 중국의 정체성을 지킬 뿐 아니라 ‘문화산업’ 발전과 중국위협론을 해소하는 소프트파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중국 핵심학술 등재지의 한국드라마 담론은 크게 ‘문화산업’과 ‘유가문화’로 나눌 수 있었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문화산업’ 담론은 ‘정부주도의 문화산업 정책’과 ‘문화수출 전략’으로 나눌 수 있었고, ‘유가문화’ 담론은 ‘한국문화의 기원은 중국문화’와 ‘한국드라마의 유가적 가치관 재현’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드라마 담론은 공산당의 문화 담론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문화 담론은 한국드라마의 성공처럼 중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표와 체제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유가문화’와 결합한 사회주의 문화와 가치관 등 주류이데올로기를 내포했다. 이러한 문화 담론 맥락에서 보면 한국드라마 담론은 미국드라마나 한국드라마 보다 일찍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일본드라마와는 다르게 공산당의 주류이데올로

기를 대변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에서 한국드라마 유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해석은 아니다. 다만 공산당의 문화 담론과 한국드라마 담론을 살펴볼 때 공산당의 주류이데올로기가 한국드라마를 수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당의 주류이데올로기와 한국드라마 수용은 첫째, 담론의 영역에만 한정된 결과였고, 둘째, 제한된 텍스트를 담론분석 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후속연구자가 이 연구를 기초로 해서 공산당의 주류이데올로기와 한국드라마의 수용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밝히고 또한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담론분석과 더불어 새로운 연구방법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 참고문헌 |

- 공채희·안수근(2012). “중국 광주지역 대학생 시청자들의 한국드라마 선호요인이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8호, pp. 136-145.
- 그레엄 터너(2011). 『문화 연구 입문』. 김연중 역. 한나래출판사.
- 김 인(2012). “중국 공산당의 지배질서와 정치발전.” 문흥호 외. 『중화 전통과 현대 중국: 전통의 지속과 사회주의적 변용』. 섬앤섬, pp. 255-279.
- 나일화(2008). “푸코의 담론을 중심으로 한 발레리나의 신체에 내재된 권력분석: 감시와 처벌의 권력개념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제23권. 제1호, pp. 33-58.
- 미셸 푸코(2003). 『광기의 역사』. 이규현 역. 나남출판.
- 백영서(2010). “한국인에게 중국이란 무엇인가: 비교의 시각.” 백영서 외.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현대중국의 분야별 진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p. 1-127.
- 앤드루 존스(2012).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세계화를 보는 열한 가지 생각』. 이가람 역. 도서출판 동녘.
- 유세경·고민경(2006). “한국 TV 드라마의 시청행위와 한국과 한류에 대한 태도 관계 연구: 중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6호, pp. 46-76.
- 장병옥 외(2012). 『중국학개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 이경숙(2012). “중국의 ‘한드’ 팬덤과 초국적 드라마 수용.” 『미디어, 젠더 & 문화』. 제23호, pp. 177-209.
- 이문행(2011).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한국 드라마의 특성: 인터넷 게시판에 나타난 시청의견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6호, pp. 167-175.
- 이원봉(2008). “중국의 국가전략이념과 대외관계.” 『정치·정보 연구』. 제11권. 제1호, pp. 321-348.
- 이정남·김병국(2010). “중국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구상에 대한 비판적

- 고찰.” 『국제관계연구』 . 제15권. 제1호, pp. 165-189.
- 이준웅(2006). “중국의 한류 현상에 대한 ‘매개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효과 모형 검증 연구: 중국인의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문화상품 이용에 따른 신념, 감정, 태도의 형성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 제20권. 제3호, pp. 277-323.
- 허진(2002). “중국의 ‘한류(韓流)’ 현상과 한국 TV 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 제16권. 제1호, pp. 496-529.
- 홍석경(2013). “세계화 과정 속 디지털 문화 현상으로서의 한류: 프랑스에서 바라본 한류의 세계적 소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언론정보연구』 . 제50권. 제1호, pp. 157-192.
- 홍정화(2013). “비관적 담론 분석 방법의 적용 가능성 탐색.”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제23권. 제1호, pp. 223-268.
- Hastings, A.(1998). “Connecting Linguistic Structure and Social Practice: A Discursive Approach to Social Policy Analysis.”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27. No. 2, pp. 191-211.
- Nye Jr. and Joseph S.(2005).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Affairs.
- Wodak, Ruth(2006). “Critical Linguistics a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Östman, Jan-Ola and Jef Verschueren(ed). *Handbook of Pragma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江澤民(2002). 『十七大報告』 . 北京市：中央黨校出版社.
- 高福安·王曉妍(2008). “中韓電視劇比較及對策.” 『現代傳播』 . 第1期.
- 郭敏(2006). “韓劇與儒家文化版圖的拓展.” 『江淮論壇』 . 第6期.
- 靳擎(2005). “淺談韓劇在我國熱播的原因.” 『電視研究』 . 第11期.
- 路璠(2007). “韓劇：作為一種文化品牌的傳播與啓示.” 『藝術百家』 . 第2期.
- 馬建高(2008). “跨文化傳播的成功典範：當代“韓劇熱”現象孕生的文化語境探討” 『藝術百家』 . 第2期.
- 徐海波(2009). 『意識形態與大眾文化』 . 北京市：人民出版社.
- 蘇志武·丁俊傑(2006). 『亞洲傳媒研究 2005』 . 北京市：中國傳媒大學出版社.



- 孫連才·候紅婕(2012). 『文化產業教程』. 北京市: 中國傳媒大學出版社.
- 孫學峰(2011). 『中國崛起困境: 理論思考与戰略選擇』. 北京市: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藝衡(2009). 『文化主權與國家文化軟實力』. 北京市: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吳麟(2006). “傳播和諧的‘傳統—現代’價值觀: 從韓劇熱播談起.” 『電視研究』. 第6期.
- 王錦俠·張奇(2004). 『天下大勢: 鄧小平的外交思想與實踐』. 廣州市: 花城出版社.
- 劉道鋒(2009). “儒家孝道思想在韓劇中的表現模式.” 『電影文學』. 第7期.
- 劉少杰(2012). 『當代中國意識形態變遷』. 北京市: 中央編譯出版社.
- 李思屈等(2012). 『中國文化產業政策研究』. 杭州市: 浙江大學出版社.
- 張建敏(2006). “韓劇的品牌傳播及其啓示.” 『當代電視』. 第1期.
- 張驥等(2010). 『中國文化安全與意識形態戰略』. 北京市: 人民出版社.
- 張少輝(2011). “韓劇与中國社會文化的同源性.” 『當代電視』. 第6期.
- 張智華(2004). “文化產業政策与韓國電視劇的發展.” 『中國電視』. 第11期.
- 趙建華(2005). “韓劇与道德教化.” 『現代傳播』. 第6期.
- 趙春梅·鄭美連(2005). “韓劇熱原因探析.” 『中國電視』. 第8期.
- 鍾琿(2008). “再看‘韓劇’: ‘韓劇’流行原因的思考.” 『中國電視』. 第9期.
- 朱權(2006). “從契合到浸潤: 文化傳播學視角下的‘韓劇熱.’” 『當代電視』.
- 中華人民共和國文化部政策法規司編(2006). 『國家“十一五”時期文化發展規劃綱要』. 北京市: 中國方正出版社.
- 包峰(2008). “解析韓劇的國際營銷策略.” 『電視研究』. 第3期.
- 胡錦濤(2007). 『十七大報告』. 北京市: 人民出版社.
- 黃維樑(2010). “從‘文心雕龍’理論視角析評韓劇<大長今>.” 『中國比較文學』. 第4期.
- 『연합뉴스』. 2013년 7월 14일.

| 논문투고일 : 2013년 07월 30일 |

| 논문심사일 : 2013년 08월 05일 |

| 게재 확정일 : 2013년 08월 16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0, No. 2 (2013)

**Korean TV drama discourse in the Cultural  
Discourse of Chinese Communist Party:  
A Discourse Analysis on 'Cultural Industry' &  
'Confucian Culture'(2002-2012)**

**Ruda Lee**

(School of Arts, Peking Univ., China)

This research selected Chinese Communist Party(CCP) as the agent for accepting Korean TV dramas, and explained the reception of Korean TV dramas by CCP in the aspect of discourse for methodology. There were three specific research purposes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major external and internal environmental elements faced by the CCP? Second, what is the discourse on Korean TV dramas generated by the core journals of China? Thir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TV dramas discourse and the discourse generated by CCP? In this research, the texts of discourse included The Report of 16th&17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11th Five-Year Plan and 120 essays of the core journals of China.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CP led by the fourth generation leaders from 2002 until 2012, faced the major external and internal environmental change of 'Cultural Globalization' and 'Peaceful Rise'. Second, the research on Korean TV dramas by the core journals of China generated the discourses on 'Cultural Industry' and 'Confucian Culture'. Third, the discourses on 'Cultural Industry' and 'Confucian Culture' of Korean TV dramas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discussion suggested and

emphasized by CCP. Accordingly, the discourses on Korean TV dramas between 2002 until 2012 were accepted in the domain of the discourse generated by CCP in external and internal environmental change. It can be said that the discourses on the Korean TV dramas were accepted as the main ideology of the CCP.

Key words: Chinese Communist Party, Korean TV Drama, Cultural Industry, Confucian Culture, Discourse Analysis